



“백배 많은 부역에 백성의 삶 여위어 갑니다”

이형상의 ‘탐라장계초’ 민속자연사박물관 완역 18세기초 제주 섬 실상 진상품 고통 덜어주고 조방장 감독 직책 건의



‘탐라장계초’ 표지(왼쪽)와 1년에 바치는 말이 400-500필이 되는 등 부역의 고통을 안은 제주 백성들의 실상이 소개된 장계 일부.



이와 함께 이형상은 사노비와 공노비의 면천 제도를 건의했다. 또한 무격(巫覡)의 피해가 크다고 보고 음사 129곳을 철회하고 불사 2곳을 불태워 무당과 박수를 귀농시켰다.

“넓이와 둘레가 지극히 작고 인구가 번성하지 않아 전결(田結)은 묵은 밭과 개간한 밭이 모두 3200결에 못미치고 호구(戶口)는 삼읍(三邑)이 모두 겨우 9100에 이를 정도이니, 경기에 비교하면 중읍(中邑)을 면치 못하거늘 상납하는 근본 수량은 통영(統營)에 비하면 백배나 될 뿐 아니라, 기읍(畿邑)에 못 미치는 힘으로 통영의 백배의 부역을 맡으니 백성의 삶이 곤궁하고 여위는 말을 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탐라순력도’를 남긴 제주목사 이형상(1653~1733). 1702년 3월 제주에 도착한 그는 그해 6월 25일 처음으로 장계를 올린다. 제주 백성들이 가난한데다 밭과 소, 전복, 밀감, 약재 등

을 진상하고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고 조정에서는 이를 수용한다. 이같은 과정을 기록한 옛 자료가 우리말로 완역됐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김익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의 번역, 김대길 전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장의 감수로 펴낸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다. 장계는 관찰사(觀察使), 목사(牧使) 등 지방관리가 지방의 중요한 일

을 조정에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탐라장계초’는 이형상이 조정에 전한 제주 섬의 중요한 실상과 그에 따른 건의가 받아들여진 뒤 임금에게 거듭 아뢴 내용을 조록(抄錄)한 1권 1책의 유폴본이다. 이 문서에는 한라산신제를 지내게 하고 사직단에 있던 풍운뇌우단을 제주성 서북쪽에 옮기는 대목이 들어 있다. 제주, 대정, 정의 삼읍 수령이 맡던 감독 직책을 조방장이 담당

“우리들의 헌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주작가회의 4·3 추념시집 ‘거기, 꽃 피었습니다’ 발간

4월이 오면 제문처럼, 제물처럼 시를 쓰고 빛이 4·3영령들 앞에 진설해왔다는 제주작가회의. 9월 말까지 제주 4·3평화공원 정문에서 추념 시화전을 여는 제주작가회의가 그곳에 전시된 시들을 모아 한 권의 시집을 엮었다. 비매품으로 제작된 ‘거기, 꽃 피었습니다’

니까’로 70편 넘는 시들이 실려 있다. 회장을 맡고 있는 강덕환 시인 등 제주작가회의 회원들은 19년째 이어지는 추념 시화전을 두고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됐네.” 하지만 그들은 “아니다”라고 답한다. 21세기 백주대낮에 미안마에서 자행되는 민간인 학살이 어찌 제주 4·3과 무관한 일이나고, 73주년 되는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



장이 추념식장을 다녀갔지만 친일 시인의 ‘푸르른 날’을 인기 가수가 부를 때 고개를 내저을 수 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시인들은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고 4·3수형인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오늘날 묻는다. “거기, 꽃 피었습니다?” 해원과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헌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 “4·3과 같은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진실은 어떻게 만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디더라도 봄은 오고, 끝끝내 꽃도 피어 나리라는 걸 믿는다”고 했다. 수록 작품들은 ‘시로 읽는 4·3생애사’를 주제로 쓰였다. 4·3희생자나 유족, 체험자들의 삶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 방점을 두고 4·3이 한국에 미친 영향, 4·3 미제형 세대의 시선, 한국전쟁 전후 시기 타 지역의 사례 등을 공유하는 도내의 시인들의 시편을 만나게 된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무심한 꽃들만 하염없이 지고 피네

성대림 시집 ‘각재기국’ 회로에락이 키운 시편들

시 쓰는 의사인 성대림(서귀포 대림외과의원 원장) 시인. 그가 세 번째 시집 ‘각재기국’을 내놓았다. ‘폐동이앗’, ‘대물깍’ 등 고향의

지명을 표제로 올렸던 앞선 두 권의 시집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 방언으로 불리는 음식을 표제로 달았다. ‘사는 것이 힘들었던 시절’ 엄마없는 조카의 힘이 되어주던 숙모처럼 전갱이를 넣고 끓인 그 음식은 위로의 또 다른 이름이었는지 모른다. 서귀포의료원장 3년 임기를 마치고 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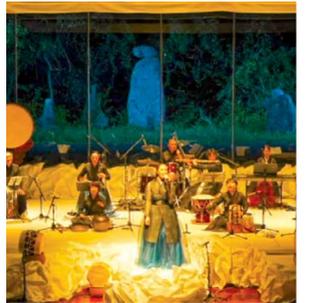


치 못한 실직 상태에서 재정적 위기를 실감했다는 ‘작가의 말’에 각재기국이 그리운 연유가 읽힌다. 지난 4년, 사연도 있었고 고생도 겪었다는 시인은 그동안 써놓은 70여 편의 시를 5부로 갈라 묶으

며 이 무렵에 느낀 감정을 담아 제목을 붙였다. ‘무심한 꽃들은 하염없이 지고 피건만’, ‘여유로운 일상의 즐거움과 가벼운 사색’, ‘아쉬움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시 호출되고’, ‘회로에락은 나를 성숙시키고’란 말에 시로 나누는 삶은 이야기들이 다 들었다. 말미에는 ‘도롱강이’ 등 ‘음미할수록 बे지근한 그 맛, 제주어’로 써 내려간 시 5편을 실었다. 제주룸, 1만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돌문화공원 야간 공연 대책 없나

작년부터 상주단체 사업 입구에서 떨어진 공연장 통로 찾느라 관객객 진땀 귀가 시 휴대폰 불빛 의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돌문화공원 공연장 상주단체 국악연희단하나아트 의 ‘꿈꾸는 섬: 설문대’.

지난 12일 저녁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을 빠져나오는 관객객들은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켜서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이였다. 익숙치 않은 길인데다 주변 조명 시설이 밝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악연희단하나아트가 2021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으로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펼친 ‘꿈꾸는 섬: 설문대’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방문객들은 안전한 귀가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들어선 돌문화공원이 지난해부터 공연장 활성화를 취지로 160석의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을 활용해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에 참여했지만 야간 공연 대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공연장 위치 안내 등 현장을 찾는 관람객을 위한 기본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산간 지역의 돌문화공원이 공연장 전용 시설이 아니어서 박물관 운영이 끝나는 저녁에는 문을 닫아놓기 때문이다. 지난 12일에도 시설 입구에 근무하는 인력이 전무한 탓에 일부 관람객들은 공연장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문화가 쫓지

6·25 문학작품 도서전

제주도 한라도서관이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협업으로 6·25를 배경으로 한 한국문학 도서를 전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시작돼 이달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기획전에는 최인훈의 ‘광장’, 하근찬의 ‘수난시대’, 문순태의 ‘철쭉제’, 박완서의 ‘정말 거기 그 산이 있었을까’를 비롯 소설, 평전, 논픽션, 르포르문학 등 한국전쟁 관련 도서 26권을 선별해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훈콘텐츠 공모전’ 2020년도 당선 작품인 ‘영상, 디자인, 문예’도 전시됐다.

함덕문학회 ‘함덕문학’ 5호

함덕문학회가 다섯 번째 회원 작품집 ‘함덕문학’을 펴냈다. 이번 작품집에는 김창호의 ‘몸이 녹은 이후’ 등 시, 박선협이 ‘화수분’ 등 시조, 부진섭의 ‘암석의 풍화작용’ 등 수필과 김관후의 평론 ‘그 바다에서 조상의 피를 마신다-성산포 터진 목과 르 클래식’의 문학’을 실었다. 강덕환, 고연숙, 박미운, 백규상 작가는 초대 작품으로 참여했다. 함덕문학회장은 “우독 선 서우봉 그 아래 빛나는 하얀 모래들의 속삭임과 아름다운 빛을 일구어내는 파란 바다의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듣자”며 회원들의 건필을 기원했다.

꽃나들이봄

문인환 / 박일용 / 이강화 / 이수동 / 이영수 / 최지윤

2021. 5. 6 THU ~ 6. 18 FRI

관람시간 안내

평일	Open 11:00	주말	Open 11:00	· 휴관	매주 월요일
	Close 18:00	(토,일)	Close 17:00	· 문의	064-750-2543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Gallery ED